

뉴스홈 | 최신기사

<盧전대통령 서거> 검찰 '뒤송송'

송고시간 | 2009-05-25 11:06



성혜미 기자

기자 페이지

총장 사퇴설 나돌아..수사 브리핑 전면 중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등장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설까지 나돌자 검찰 내부는 뒤송송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임 총장은 25일 오전 9시께 청사에 나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으며 굳은 표정에는 수심이 엿보였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던 주례 간부회의를 취소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모종의 결심을 한 게 아나나는 추측을 낳게 했다.

임 총장이 사퇴 의견을 이미 밝혔으나 청와대에서 만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검찰 수뇌부(자료)

하지만, 노 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임 총장이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검찰조직 전체를 위해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박연차게이트' 수사 마무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소문도 있다.

임 총장이 사퇴할 경우 이인규 중수부장은 물론 중수부 수사팀까지 대폭 물갈이되면서 사실상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

검찰은 분열과 동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닥쳐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고, 임 총장이 제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 청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삼오오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짧은 글 3개가 올라왔을 뿐 집단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편, 공황상태에 빠졌던 중수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되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수사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서거 이후 기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

noanoa@yna.co.kr

🔗 관련기사

- <盧前大統領 서거> 송기인신부 애절한 '추모의 글'
- <盧前大統領 서거> 권여사 "다 놓으시고..."(종합)
- <盧前大統領 서거> 이강철, 구속집행정지 신청
- <盧前大統領 서거> 경찰수사 한달 더 걸릴 듯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5/25 11:06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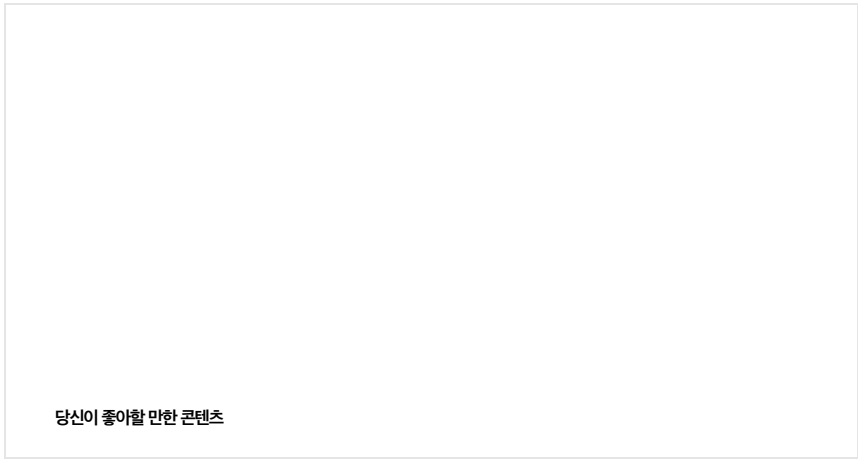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뒀던 두 눈만 열었다... 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졌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장관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51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충청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리/제휴문의